

## 제 94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09.3.10)

### 다문화커뮤니티 마치즈쿠리: 두 곳의 현장으로부터

김치아키  
FMYY 프로듀서  
야마나카하야토  
간세이가쿠인대학교수

고베시에는 다수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가타구는 재일한국·조선인을 시작해 베트남인, 중국인, 필리핀인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28 개국의 외국 국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1995 년 1 월 17 일 효고현 남부를 덮친 대지진은 이런 외국 국적의 사람들에게도 거대한 피해를 입히고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외국 국적 소지자들은 이 긴급한 시기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워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한편, 나가타구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도 대부분이 지진 피해로 공원이거나 학교에서 피난 생활을해야했다. 베트남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자 /피해 베트남인 구원 연락 회의/이 중심이 되어 FM 여보세요 와 FM 사랑의 협력으로 가톨릭 타카토리 교회 자원봉사 구원기지 안에 미니 FM 국을 세운 것이 4 월 16 일, FM 유멘이다. FM 유멘은 베트남어 방송 뿐 아니라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Tagalog 어, 영어, 남미인을 대상으로 스페인어, 넓게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일본어까지 5 개언어로 방송을 개시했다. 커뮤니티 FM 라디오로서 나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진 피해지에 7 개언어로 피해 관련 정보, 지역 뉴스, 생활 정보, 각국의 문화 소개 등의 방송을 매일 오전 7 시부터 밤 12 까지 일본인과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이어왔다. 1996 년 1 월 일본우정성 인가를 얻어 커뮤니티 FM 라디오국으로서 정식으로 개국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 사회의 미디어 매체로서 방송을 지속하고있다.

#### <Q&A>

Q. 나가타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FMYY 의 존재를 알고 있다. 주요방송채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하는지도 알고 싶다.

A. 고베라는 지역의 특성상,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FMYY 는 일반매체와는 다른 지역적 정보 및 나라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거주자들이 듣고 있다.거주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나가타에 거주하는 많은 일본인들 또한 그러한데 그것은, 실시간지진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정보를 실시간으로 24 시간 제공하여 수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FMYY 여보세요와 같이 한국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언어를 일본어와 함께 사용하는 방송도 제공하고 있다.